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전남 단 1곳 뿐...개선책 시급

전국 1527곳 중 경기·울산·전남 등 3곳 0.19% 불과

“재정적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 현실 방안 모색해야”

전남 1곳을 비롯 전국에 단 3곳만이 BF인증(본인증)을 교부받은 시설로 드러나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27곳 중 BF인증 교부시설은 단 3곳 뿐인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실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

준 전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1527곳이며, 이용장애인은 3만 15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BF인증(본인증)을 교부받은 곳은 경기와 울산, 전남 단 3곳뿐으로 나타나 전체 0.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99.8%가 BF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의 생활과 거주를 위한 시설이 정작 장애인 편의와 안전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의료 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3570곳 중에서도 BF인증 교부를 받은 시설은 21곳으로 전체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5곳, 장애인거주시설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BF인증제도에 있어 지

난 2015년부터 BF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 신축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하거나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BF인증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단체의 한 간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함에 있어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 분들에게 거주·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교부는 1527곳 중 단 3곳에 그쳤다”며 “더욱이,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BF인증 교부 역시 전체

3,570곳 중 21곳에 그쳐 0.6%의 BF인증 교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에 대한 BF인증 참여는 의무가 아니지만, 매우 저조한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교부 현황은 장애인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BF인증에 있어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신안군, 노인인권교육 실시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60명 대상



신안군은 21일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4월부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교육이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신안군과 전라남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하여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 침해 및 예방사례, 노인인권감수성,

노인인권준중케어의 이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인권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평소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는 좋은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군 관계자는 “일선에서 지역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딸처럼, 며느리처럼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감수성이 향상 되었기를 바라며, 노인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인권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안군은 10월 28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6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장애인에게 사랑과 용기를”

장흥군 제1회 장애인돕기 특별바자회 후원금 전달

장흥군 제1회 장애인돕기 특별바자회 후원금 전달식이 지난 16일 제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장흥교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제1회 장애인돕기 특별바자회는 장흥사랑봉사단(단장 김양택)과 대한적십자사 장흥읍지회(회장 이영순)이 주관하고(사)내일을 여는 멋진여성전남협회(회장 위정자)후원으로 지난 9월 22일 열렸다.

이번 장애인돕기 특별바자회에는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사순문 도의원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사)내일을 여는 멋진여성전남협회에 150만원, 전남농아인협회 장흥군지회(회장 김종희)에 100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GS25, 시각장애인 시설 인근 편의점 ‘점자 안내문’ 도입

편의점 GS25는 시각장애인 시설 인근 편의점에 점자 안내를 부착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GS25는 포항 지역 전 매장(86개점)에서 점자 안내를 시작했으며 이번에 전국 시각장애인 시설 42곳의 반경 1km(도보 30분) 내에 있는 144개점을 ‘시각장애인 점자 배려점포’로 선정했다.

GS25 시각장애인 점자 배려점포에서는 주요 편의 시설 및 제품에 점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또 일반 고객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배려 안내 포스터를 비치할

예정이다. GS25 시각장애인 점자 배려점포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GS25는 정확한 점자 안내문을 제공하기 위해 사단법인 경북 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쳤다.

김시연 GS리테일 사회공헌 담당자는 “앞으로도 GS리테일은 장애를 가진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쇼핑을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임로 340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